

\*\*\*\*\*

베네룩스의 通信開放政策

\*\*\*\*\*

電氣通信分野에 있어서 技術側과 規制側間의 상호관계는 결코 근접한 적이 없었다. 이런 면에서 시대 착오적인 電氣通信政策을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PTT當局들의 노력은 이용자 및 제조업체 社會에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TELECOM-Geneva 87 특집판 기사들 중 첫번째인 이 글은 급속히 변화하여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環境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그 중 두나라의 PTT가 보여주고 있는 노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美國과 英國등 앵글로 색슨어 사용국가들에서의 電氣通信自由化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유럽대륙에서의 政策變更은 훨씬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規制化의 일환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장황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한 유형이 전반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변화가 社會·政治的으로 미치게 될 相關效果들도 주의깊게 검토되어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경향의 주된 원인은 아마도 네덜란드나 벨기에, 프랑스 및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議會가 通信政策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일 것이다. 급속한 自由化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어느 것이든 결과적으로 政治的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 PTT중 가장 경직되고 이론에 치우친 곳일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추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技術의 發達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수용태도는 PTT당국 자체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英國을 제외하고는 네덜란드가 가장 진취적인 PTT의 위치를 지켜왔는데 이 나라에서

는 앞으로의 政策目標에 대한 논의가 Swarttouw 및 Steenbergen위원회의 구성 - 각기 1982년 3월, 1985년 6월에 보고됨 - 으로 명백히 나타났 다.

이 중 Steenbergen보고서의 보고 사항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것이었다. 건의내용 중에는 네덜란드 PTT는 완전한 政府所有의 有限責任會社가 되어야 하며, 세계의 役割組織 즉 전통적인 郵便電信業務에 관계하는 郵政局과, 公衆電氣通信業務를 담당하면서 기본 네트워크 하부구조를 책임지게 될 電氣通信活用局, 터미널공급과 附加價值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유경쟁시장에서 타기업체들과 公開競爭을 하게 될 電氣通信事業局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건의되어 있었다.

規制 및 裝備承認面에 대해서 steenbergen보고서는 英國의 Oftel과 비슷한 조직을 설립하여 The Regelgeving en Vergunningen Telecommunicate (RVT)로 명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조직은 附加價值서비스와 許可를 規制하고 裝備에 대한 認可를 내주며 라디오, 주파수를 모니터하고 許可해 주는 業務를 처리하게 된다.

### 1. 네덜란드 電氣通信法案

Steenbergen 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대체로 수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PTT當局은 상당부분의 내용을 保留시켰다.

특히 PTT는 터미널 시장의 完全公開 및 認可된 回線에 대한 제 3자의 再販賣行爲, PTT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면서 수익성도 없는 活用局과 事業局으로의 PTT 內部分離에 대해 반대했다. 政府도 steenbergen 건의사항들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認可된 回線의 再販賣에 대한 PTT의 반대입장을 지지하고 조직독립요건을 네덜란드의 自由化 일시인 1989년 1월 1일 이후로 5년동안 보류시켰다.

네덜란드 운수성 (Transport and Public works) 장관인 Neelie Smit-Kroes는 改正된 電氣通信法案이 금년가을까지는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PTT法規構成 및 裝備周邊政策

上的 變化와 附加價值서비스의 民間供給이 들어가게 된다.

"PTT 公債發行으로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全體株式資本金을 소유하는 民營有限責任會社로 설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Smit-Kroes는 확인했다.

네덜란드 PTT 장관 Cor Witt 는 電氣通信事業局이 5년의 검토를 거친 후에 創設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郵便과 電氣通信業務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될 때, PTT의 공정하지 못한 補塡化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문제는 相互補塡 (cross-subsidy) 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의 相互補塡의 문제다" 라고 하고, 네덜란드에서 수년동안 행해져온 데이터와 텔렉스, 電話業務 각각에 대한 個別會計處理를 행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덜란드 政府 및 PTT는 이제 1989년 1월에 시작될 신청자 장비의 國內市場開放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國內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법적인 私設電話回線의 연장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는 전혀 計劃되지 않고 있다. Wit는 이러한 상황을 "回線暗市場이라기 보다는 灰色回線市場" 이라고 특징짓고,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들 용어들로 불리우는 시장과 PTT가 경쟁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RVT에 대해서는 이 조직의 정확한 특질이 아직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비록 Smith-Kroes가 RVT가 운수성內의 定規部署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自體認證이 주요 시스템과 PABX를 規制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Wit는 일종의 形式承認書가 一般電話機에 붙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RVT의 그 외 기능들은 英國의 Oftel의 현재 業務를 반영하게 될 것 같다.

오늘날, 유럽대륙에서의 電氣通信에 대한 自由化 또는 再規制에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은 VAN 서비스문제다. 다른 많은 문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상당히 進步的이었으며 이러한 政策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PTT 내부의 건의사항들이 通信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許可요건을 옹호하고 있는 보고서의 타당성여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被許可人이 자신의 활동이 기본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내용이나 경제성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밖에 개선되는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Wit는 네덜란드는 英國의 뒤를 이어 센트렉스시장 (centrex market)으로 뛰어들 것임을 확인했으며, "2년 이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2. 波及效果

네덜란드에서의 電氣通信自由化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자세는 여타 유럽국가들의 原型이 되었다. 그에 따라 네덜란드를 본보기로 電氣通信活動이 相互補填 현상이 심한 獨占郵便業務로부터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TT는 핵심이 되는 네트워크 하부구조 (infrastructure)를 계속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터미널 裝備 및 附加價值서비스시장에 점진적으로 競争을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나오는 波及效果는 사실 이웃나라 벨기에에서 이미 느껴진다.

Steenbergen 위원회는 최근에 벨기에에서 나온 Wise Men Commission의 보고서와 비교되고 있다. Steenbergen 보고내용과 相通하게 同위원회의 보고서는 벨기에 만한 규모의 나라에서 기본 네트워크 獨占의 해제는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裝備供給面에서의 상당한 自由化는 附加價值서비스의 民間供給과 마찬가지로 3-5年 以內에 강력히 권장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압력으로 모델과 텔렉스 自由供給은 12개월 以內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TT (Regie Telephones et Telegraphes) 내부에는 독자적인 會計構造를 지니면서 명확히 구분된 事業部가 설립되게 된다. 또한 NAT標

準 및 承認機構로 알려진 새로운 規制 및 承認組織도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벨기에의 自由化의 첫단계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 2단계에서 RTT는 少額의 株式만 발행할 수 있는 民營有限責任會社로 전환될 수 있다.

벨기에의 PTT국장 Paula D'Hondt는 "우리는 네덜란드에 좋은 실례를 갖고 있으며 Wise Men Report에 상당히 만족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벨기에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의 바이블(bible)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고, RTT가 점차 政府에서 獨立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公債發行이 장기 목표의 하나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것은 政府가 다수의 會社株를 보유하는 것에 좌우되게 될 것이다. J. De Proft 청장은 RTT의 變貌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活用 / 事業 會計分離의 권장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

벨기에내의 自由化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VANS (Value Added Network Service) 분야에서의 주된 변화에 대한 抵抗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VANS를 완전히 自由化하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불법적인 네트워크 出現危險을 무릅써야 하고 이것이 기본 하부구조에 미치게 되어 있는 效果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조치에 반대하며, 필수적인 VANS의 제공을 獨占業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De Proft는 말한다. "필수적인 VAN-서비스"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D'Hondt와 De Proft는 소규모의 VAN專門 業體들이 벨기에에서는 바람직하리라는 견해다.

베네룩스 국가들은 공통된 필요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은 주요 國際通信國들이다. D'Hondt에 따르면 네덜란드 텔레포트의 경험실례는 곧 벨기에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CATV放送網의 상당히 높은 普及度도 네덜란드의 Zegveld Commission 보고사항과 연결되어 유럽 최초의 대규모 放送 / 電氣通信網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國際討論會

벨기에와 네델란드는 국내 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열리고 있는 주요 國際會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情報서비스에 대한 유럽공동시장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Green Paper는 유럽 공동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遲延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몇 달동안 유럽공동체내에 ISDN을 공동으로 도입하자는 것에 대한 建議書와 비교되고 있다.

Smit-Kroes는 또한 유럽공동체의 標準化 목적을 완전히 지지하면서도 施行時期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해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때로 나는 電氣通信이 政策을 비웃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기도 했다. EC Green Paper에서 제안한 유럽 전체의 利用 및 許可된 回線에 대한 使用量의 關稅는 國際事業共同體를 만족시킬 정도는 못되었다. 베네룩스 국가들의 경우 이들 關稅가 미래의 ISDN에의 投資를 방지하는 하나의 解決策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극소수의 行政機關이나 政府가 현재 관심을 갖는 문제가 다가오는 1988년 ITU의 WATTC 88 (World Administrative Telephone and Telegraph Conference 88)의 主題가 될 것이다. Smit-Kroes는 여기에 대해 論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어떠한 解決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Hondt는 기본적인 世界 情報通信關係가 規制되어야만 한다는 유럽 傳來의 생각은 고수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네델란드의 진취적인 움직임에 고무되어 벨기에에는 이제 自由化의 길에 접어들었다. 國內 및 國際 情報通信市場에서의 公開競爭時 이러한 시도에서 나오게 될 최종결과가 무엇이든 시간애 變化의 한 양상이 유럽에 대두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의 自由化는 美國이나 英國 또는 日本에서 보다는 훨씬 느리면서도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